

마이크와 샌디 하틀리 수학, 과학 & 기술 콤플렉스에서의 혁신 20주년 기념

기술 혁신의 유산 - 마이크와 샌디 하틀리 수학, 과학 & 기술 콤플렉스는 2003년 8월 23일에 공식적으로 개관하였고, 학교의 몰입형 기술 프로그램, 예를 들어 3D 스캐닝, 증강 현실, 모션 캡처 등의 시연으로 축하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센터가 개관했을 때,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통합된 학교 기술 센터로 평가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공간들은 여전히 수학, 과학,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프로그램의 본거지로, 오늘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고 미래에 그들의 필요에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드-퍼시픽은 변화하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최초의 학교, 예술학교 창립, K-12에 1:1 아이패드 제공, MPX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다가옴에 따라 최첨단 기술 센터 개발 계획이 최우선 순위로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위한 기반 구축 - 과학, 수학 및 부상 중인 기술을 위한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은 학교의 성장 영역으로 식별되었습니다. "1997년에 시작된 건물의 디자인 팀의 일원이었던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라고 당시 기술 교사이자 조정자였던, 지금은 쿠푸 호우 아카데미의 디렉터인 마크 하인스 박사가 회상합니다. "세 년 동안 우리는 매달 만나 꿈과 비전을 나누고, 현장 방문에서 돌아와 보고하며, 최첨단 건물 디자인에 대해 광범위하게 읽었습니다. 우리 과정을 안내한 지침 중 하나는 이사회와 조 라이스 회장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짓지 마세요. 50년 후에도 관련성이 있을 시설을 지으세요. 학습의 풍경과 그 방향을 알면서.'"

2002년 1월에 착공된 이 프로젝트는 조 라이스 회장의 리더십 아래 시작된 성공적인 자본 캠페인의 결과였으며, 이사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틀리 부부는 해리와 잔넷 와인버그 재단, 애서튼 패밀리 재단, 해롤드 K.L. 캐슬 재단과 함께 중요한 기여를 한 수혜자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조 라이스가 미드-퍼시픽에 대한 그의 꿈을 우리와 공유했을 때, 그는 우리에게 이 꿈을 현실로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샌디 하틀리가 말합니다. "하나는 수학, 과학 및 기술 건물이었습니다. 하와이와 본토에 여러 콜 센터를 가진 대규모 여행 회사를 운영했던 우리는 이것이 미래의 방향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리키 '03과 레이첼 '03 하틀리는 프로젝트 20주년을 회상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반일 때,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기부와 건물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시설은 구식이었고 과학과 수학이 미래의 선두 주자로 부상하는 개념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복합 시설은 미드-퍼시픽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장난삼아 이 시설이 더 일찍 지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계획: 성장의 비전 - 39,000 평방 피트의 세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 단지에는 14개의 수학 및 과학 교실, 디지털 비디오 스튜디오, 원격 학습 센터, 생명공학 실험실, 비디오 회의용으로 연결된 회의실, 공학, 계산 과학, 로봇공학, 디자인을 위한 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변화를 예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공간도 학생들과 교사들의 필요에 맞추어 발전해왔습니다.

폴 턴볼 박사의 비전과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관대한 후원자들 덕분에, 미드-퍼시픽은 심층 학습 교수법과 학생들에게 전문 수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 후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술 디렉터인 브라이언 그랜텀은 와인버그 기술 플라자에서 기술의 변화와 학습 공간의 진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주 전체의 교직원과 행정진에게 기술 통합과 교육의 길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해왔습니다."라고 그랜텀이 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술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이 건물 안의 공간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요구에 맞춰 최첨단을 유지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개관 20년 후, 하틀리 수학, 과학 & 기술 콤플렉스는 여전히 캠퍼스 입구 근처에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쌍둥이 딸들은 건물이 개관된 2003년에 졸업하고 콜로라도 대학에 갔습니다."라고 샌디 하틀리가 회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캠퍼스로 돌아와 미드-퍼시픽에 다니는 여섯 명의 손자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이런 기회가 없었고, 하와이의 많은 아이들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미드-퍼시픽에 다닐 수 있는 것은 어느 아이에게나 절대적인 특권입니다. 여기서는 최첨단 과학 및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의 번창하는 학문 및 예술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리키와 레이첼은 복합 단지의 유산이 그들의 가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급하며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와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가족은 이 복합 단지가 이미 미드-퍼시픽의 학생들에게 큰 꿈을 꾸게 하고, 졸업 후 그들의 야망을 추구하면서 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 계속 영감을 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